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가결... 단과대도 삭감없이 통과

중앙기구 중 동아리연만 삭감돼
자대·해대·수의대 감사우수평가
대위원 127명 인준받아 승인

중앙학생자치기구 하반기 회의가 지난 12일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13일 총대의원회, 18일 총여학생회 운영회의가 열렸다.

총여학생회 운영회의는 지난 18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총여학생회 학생복지 및 행사비 중 총여학생회 배정액은 1967만9000원으로 이 중 1057만7290원이 집행됐다. 남은 예산은 2학기 중간·기말고사 간식구입, 여학우의 날 행사, 특강 등에 집행될 예정이다.

또 2012학년도 총여학생회 사업계획, 총여학생회 상반기 사업평가, 총여학생회 하반기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이에 앞서 총대의원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13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

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과대학 학생회를 포함한 학생자치기구의 2012학년도 상반기 감사평가가 이어졌다.

이어 2012학년도 2학기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예산 분배안이 참석한 대의원 156명 중 127명의 인준을 받아 승인됐다. 학생자치기구 전체 예산 2631만 9600만원 중 중앙자치기구가 45%를, 단과대학이 55%를 분배받게 됐다. 중앙기구 중 총학생회는 48.5%, 총대의원회는 16.5%, 동아리연합회는 17%, 총여학생회는 18%를 받는다.

총학생회는 회계감사에서 △영수증내역 서명요류 1회 등 총 2회의 경고를 받았다. 총여학생회는 회계감사에서 △영수증 서명누락으로 총 1회 경고를 받았다. 총대의원회는 모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다.

동아리연합회는 △회계장부에 대한 내용 오기 1회 △수령증 번호 오기 1회 등 총 4회의 경고를 받아 하반기



지난 12일 총학생회 하반기 정기운영총회에서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사업일정 승인 안건'에서 찬성하는 학과대표들이 명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예산분배과정에서 20%의 예산이 삭감당했다.

단과대학 감사평가에서는 자연과학대학이 감사최우수평가를, 해양과학대학과 수의과학대학이 감사우수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12일 열린 총학생회 하반기정기총운영위원회에서는 보

고안건에서 △학생후생복지기금 집행내역 △학생자치기구 학생행사보조경비 집행내역 △총학생회 상반기 사업평가서 및 결산내역 △총학생회 공약이행 상황 등이 보고됐다. 또 2012년 총학생회 하반기 예산안은 2990만원이 책정됐으며 이는 심의결과 통과됐다.

김명지 기자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안돼 행정처리 혼란

지난달 24일 87명 인사이동... 순환전보제 따라

총무과 “행정업무편람 배포하는 등 최선의 노력”

제주대가 지난달 24일자로 직원 인사이동을 단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동은 순환전보제라고 불리며 직원들이 2~3년의 주기를 갖고 부서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이동을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만 일을 하면 업무 능력이 정체되거나 독창성과 창의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을 보완하고 행정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달 24일자 인사이동을 통해 총 87명이 부서를 옮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사이동을 하면서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인사이동 후 한 동안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인사이동이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니 업무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인수인계만 제대로

돼도 수월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상대학의 한 조교는 “인사이동 후 평소보다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특히 전임자가 했던 업무에 관해 물어보면 대답이 매우 늦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이동 직전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 전임자가 있는 부서에 가서 물어보라고 한 직원도 있었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담당 부서에 궁금한 내용을 문의했는데 잘 모르겠다면 전임자가 있던 부서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며 “해당 부서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총무과에서는 인사이동을 하면서 일 처리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이동은 공무원법상 당연히 해야 하므로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무 공백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과 인사이동 공지를 7월부터 했으며 희망근무지원제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부서로 최대한 배치하려 했다고 말했다.

강승원(총무과) 실무관은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쓰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행정업무편람도 만들어 인사이동 후 직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드래프트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래프트제는 국제교류본부 등 특수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 혹은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부서 장의 요청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례로 이번 인사단행에서 드래프트제를 통해 취업전략본부의 경우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한 명의 직원만 바뀌었다.

박시현(총무과) 인사팀장은 “교수나 조교 등 대학 구성원이 불편함을 갖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국립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12 제주 청년 취업박람회 오는 21일까지

채용박람회 23개 기업 참여

‘2012 제주 잡 페스티벌(Jeju Job Festival)’이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청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특별토론회, 2012 하반기 청년 잡 페어(Job Fair) 등이 열린다.

청년구직자 등 도민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열리는 2012 제주 잡 페스티벌에 19일 오후 2시부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로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지역 청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특별토

론회’가 열린다. 20일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사회적기업 포럼이 열린다. 21일오후 1시에는 2012 하반기 청년 Job Fair가 열린다.

‘제주청년 취업! 이것이 돌파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과 청년 사업가 등이 참가한다.

20일에는 ‘사회적기업의 미래와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주최로 사회적 기업 포럼이 열린다.

마지막 21일에는 도내외 23개 기

업이 참여해 제주 도내 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 LINC사업단 주최로 2012 하반기 청년 Job Fair가 열린다. 주요 행사로 △채용면접 △취업 카운슬링 △모의면접 경연 등이 마련됐다. 취업카운슬링에서는 취업서류와 복장, 헤어스타일 등에 대해 청년 구직자 개인별 맞춤형으로 조언하는 자리를 갖게 된다. 또 모의면접 경연에서는 도내 각 대학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학생들이 모의면접 과정을 통해 면접시 역량 대결을 벌이게 된다.

여대생 취업 아카데미
13일부터 모집한다

‘여대생 취업 아카데미’가 다음달 19·26·27일 총 3일에 걸쳐 열린다.

여대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대학원동(취업전략본부 건물) 2층 취업전용강의실 등에서 진행된다.

아카데미에서는 셀프리더십, 나의 성공 스키지, 임시지원서 작성방법, DISC(행동유형 검사프로그램), 이력서 컨설팅, 복장코칭&면접메이크업, 합격이미지 만들기, 자신감훈련 스피치, 웃음치료, 자신감 있는 면접 등을 다룬다.

신청대상은 제주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아카데미는 13일부터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전략본부(754-2311)로 문의하면 된다.

정한별 기자

제주대병원, 재학증명서 없이 학생 할인

신분증 제시로 간편화

학생들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비를 감면받기 위해 진료를 받을 때마다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지난 11일부터 제주대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본인의 이름만 말하면 대학병원에서 대학 본부와 재학증명 자료

를 공유해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해 재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같이 바뀐 것이다. 단 처음으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총장 임용추천제도 10월 중 윤곽 잡힐 듯

공청회 후 보완 작업 중
“회의록 공개는 어렵다”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 학생, 직원 참여’ 등에 대한 총장 임용제도 연구용역 보고서의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이후 3차례 이뤄진 제도개선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지난달 23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운영 결과 최종 발표한 이후 지난 14일자

지 총 세 차례의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렸다.

1차 회의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 2차 회의에는 교수회장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소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수(통신공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3차 회의에서는 운영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회의 결과,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학생과 직

원의 총주위 참여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가 오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방식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4차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10월 중순에 이뤄진다.

기획평가과는 자세한 회의 내용 열람에 대해 “회의 내용 중 민감한 사항이 있다”며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명지 기자

제주서

풍요로운

청정제주 그대로의 맛을 드립니다
제주산 흑돼지로만 만들었습니다
인공조미료, 방부제, 중량제, 아질산나트륨을
넣지 않은 웰빙제품입니다

판매처 : 제주햄 상설 판매장(제주대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문의 745-7013, 702-0124

제주햄 명절선물세트 출시!

제주햄 명절선물세트 제주대 교직원 특별할인가 판매

명품흑돈제주햄 1호	62,000	-----	할인가 33,000
명품흑돈제주햄 2호	82,000	-----	할인가 41,000

제주흑돼지 캔햄 선물세트

제주흑돼지 소시지 선물세트

제주햄은 제주대학교와 제주돈육수출센터가 공동설립한 회사입니다

사설

지역 언론의 바른보도를 촉구한다

최근 일부 지역 언론의 제주대학교와 관련된 보도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제주대학교가 제주지역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실제 보도 태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기에 그럴까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다.

어느 지역신문의 9월 13일자 기사의 제목은 ‘제주대 특허출원 거점국립대 중 꼴찌’였다. 부제는 ‘작년 89건, 경북대의 25%...대학 평가지표 밑바닥’이었다. 이 기사에서는 “교수 및 학내 기관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2011년)은 가장 낮았다”면서, “국내특허 기준으로 제주대는 지난 한 해 89건에 그쳐 가장 많이 출원한 경북대(349건)의 25.5%에 그쳤다”고 비난했다. 이 기사는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율 1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최소) 1위에 대해서도 보도했지만 그것을 부각시키지 않은 채 특허출원의 ‘꼴찌’와 ‘밑바닥’을 강조했다.

물론 이 보도에서 최소한 날조된 것은 없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로써 독자들을 오도했음은 분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신문이 내세운 특허출원의 지표는 전체 건수이지 교수 1인당 평균값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했다고 하는 경북대는 교수 수에 있어서 제주대의 2배나 되는 규모인 큰 대학이다. 규모가 2배인 데다가 해당분야 최고의 대학과 단순히 건수에서 25.5%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제주도의 통계를 서울이나 부산·대구 등의 대도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렇다면 그 신문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의 주요 신문, 아니면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과 주요 지표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가? 발행부수, 지면 등에서 단순 비교하여 형편 없다고 말해도 좋은가?

성의 있는 보도를 하려면 ‘대학알리미’에 공지된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마땅하다. 대학 규모가 다를 경우 단순 수치가 아닌 평균치로 보도해야 함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이 신문은 8월 17일자에도 ‘연구와 답 쌓은 제주대 교수들’이라는 표제에 ‘거점 국립대 가운데 최하위’임을 강조하면서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논문 실적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표제에서 연구와 답 쌓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신문은 최근 대학평가에서 전산통계학과가 전국 최우수를 차지했다는 점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제주대 홍보실에서 보도 기사를 제공했는데도 완벽하게 외면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제주대의 발전을 원한다면 문제점과 함께 긍정적인 면도 보도해 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이 신문의 보도태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닌지, 제주대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시철에 이렇게 수궁하기 어려운 보도태도를 접하는 우리는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언론의 비판적인 기능을 충분히 존중하는 우리로서는 결코 비판적인 기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히 보도해 주기를 촉구할 따름이다. 그것이 이 시대 언론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영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제주는 태평양의 일원... 산업 균형발전 이뤄야”

탐라대전 기념해 학술대회 열려

제주의 과거·현재·미래 성찰

탐라문화연구소(소장 윤용택)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국제교류회관에서 ‘바다로 열린 세계, 제주의 해양문화’를 주제로 한 2012 탐라대전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대만의 아시아 태평양 해양문화학자들이 참가해 아시아의 해양문화에 대해 4개의 분과로 나눠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표자들은 제주문화 형성과 전승 과정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아시아 태평양 각 지역문화를 고찰하고 지역 간의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탐라왕국의 건국과 해양문화 형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제주도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해 왔지만 탐라국을 건국한 세력은

외부 이주 세력”이라고 말했다.

주강현(탐라문화연구소) 석좌교수는 ‘탐라와 제주의 해양문명사적 성찰’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를 육지에 딸린 섬이 아니라 북서태평양의 일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제로 제주도는 남방의 영향을 강력히 받는 자연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어종 어법, 식생활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주 중심으로 부는 바람과 해류, 이를 이용한 해양력에 주목해 ‘제주 바다’ 연구의 시각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권(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씨는 ‘여말선초 제주사회의 변동과 해양유민의 발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말(馬) 자유교역이 통제를 받아 제주 경제 기반이 무너지자 제주도민들은 배를 몰아 장사를 다녔던 경험을 살려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도민들이 바다로 나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씨는 “제주 목



지난 14일 신용하 전 서울대 교수가 이날 학술대회에서 ‘탐라왕국의 건국과 해양문화 형성’을 주제로 기조주제를 발표를 하고 있다.

마 경제에 대한 구체적 사료가 부족하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제주 사람들의 중세사를 조금이라도 풍부하게 구성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운(사회학과) 교수는 ‘해민으로서의 제주도민의 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주 사람들은 관광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제주가

살 길은 농업, 수산업, 관광업의 균형 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조 교수는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는 바다를 끼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나라의 해양문화를 살펴 제주 도민들도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김창인 회장, 또 20억 기부... 총 161억 쾌척

문화교류관 시설비 등에 사용

재일동포 기업가인 김창인 회장(83)이 지난 13일 대학 발전기금으로 현금 20억원을 쾌척했다.

김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기금 141억5000만원을 기탁했는데, 이번 20억원의 추가기탁으로 161억5000만원에 이르게 됐다. 현재 제주대 발전기금 총액 878억3000만원의 18.3%에 해당한다.

이번에 기탁한 발전기금은 문화교류관의 수장고 및 기획전시실 추가

시설과 재일제주인센터 추가 사업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재일제주인센터’는 김 회장이 건립기금을 냄으로써 본격 추진됐다.

그간의 발전기금 내역을 보면 △문화교류관 건립기금 현금 30억원



(2008년 3월) △재일제주인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현금 5억원 (2008년 8월)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연구 및 센터 운영기금 현금 100억원(2010년 9월) △문화교류관 건립기금 6억5000만원(2011년 3월)이다.

김 회장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 출신으로 16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 했다. 현재 오사카에 있는 남해회관 외 다수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성지아 기자

‘재일제주도민회의 발자취’ 특별전

사진 493점 28일까지 전시... 재일도민회 역사 ‘한눈에’

재일제주도민회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재일제주인센터 제1회 특별전’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재일제주인센터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재일제주인센터 그랜드 오픈을 맞아 기획된 이번 특별전시회에 선보일 사진은 총 493점, 재일제주도민회 50

년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이뤘거나 시대별 특징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사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고향 제주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재일제주도민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전에 전시된 사진. 1963년 1월 재일본제주도민회 창립총회.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 유의사항 : A4용지 10~30매 내외(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 됨.
- 접수마감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발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2013년 1월 1일 발행 예정)
- 시상내역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사람들

강창일 의원 자료 기증
재일제주인센터에

강창일(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의원 이희귀 본



자료, 마이크로필름, 도서 3000여권 등 감정이 1억 5000만원 상당을 재일제주인센터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된 자료 중에는 1936~1941년까지 조선총독부 정부총감을 지냈던 오오노 로쿠이치로(大野縁一郎) 문서, 일본 구육해군 문서(구陸海軍文書), 다케다 한시(武田範文)의 흉주 유적 등이 있다.

강 의원은 또 △동학농민전쟁 △안중근 의사에 저격 당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조선총독부 △일본 우익 △일제말 강제연행 △근대한일 외교 △청일전쟁 등과 관련한 자료를 기증했다.

이들 자료는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희귀 본이다.

비엔나 국제 아트페어에
교대 양영식 교수 참가

양영식(초등미술교육전공)교수가 20일부터 열리



는 오스트리아 국제아트페어에 참가한다.

양영식 교수는 갤러리한 소속 작가로 참가하게 됐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양 교수의 작품 6점이 전시된다. 양 교수는 1998년 개인전 ‘사물의 관계’ (서울, 도올 아트타운)를 시작으로 총 10번의 개인전을 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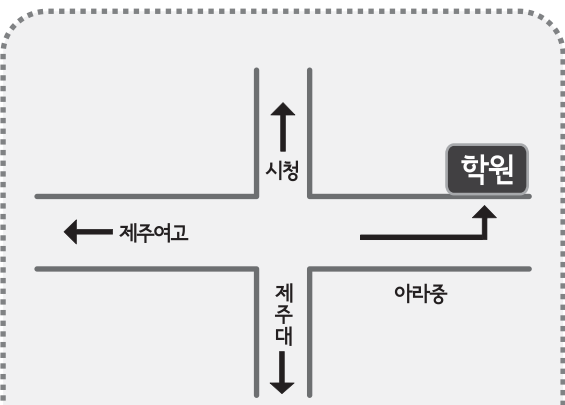
이번 비엔나 아트페어는 전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120개 화랑이 등록했다.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TOEIC도 이제...외교원

새롭게 단장한 토익특별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01 최고의 토익전문 강사진
- 02 사설학원 대비 훨씬 저렴한 수강료
- 03 최신 TOEIC시장에 발 맞춘 신경향 수업
- 04 내 스케줄에 딱 맞춰서 들을 수 있는 수업시간
- 05 수강생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접수기간 : 8월 24일 ~ 9월 26일(9월 24일 개강)
접수방법 :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fli.jejunu.ac.kr)
문의 : 외국어교육원 2층 토익특별반 (064-751-2291, 754-2347)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외국어교육원 토익특별반
Foreign Language Institute

☎(064)754-2347, 751-2291, http://fli.jejunu.ac.kr

교수시론

성폭력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현수
법학과 교수

“

인간사회에 있어 범죄는

없어질 수 없고 없앨 수도 없어

아동 대상 성폭력자에 대해

살인죄에 버금토록 형량 높이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형자 교육에 철저 기해야

”

참담한 우리 사회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욕망이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범죄는 집단, 지능, 흉포화 되고 있다고 말해진다. ‘묻지 마’ 범죄는 물론 연쇄살인, 초등학생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유괴살인 등 잔악하고 반인륜적 강력범죄가 전국 어디서든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누구도 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히 우리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전 우주보다 고귀하다’는 인간 생명이 극도로 천시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모두 경악하고 당황하며 공분(公憤)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누구인가? 아무런 저항능력을 갖지 못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이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잠을 자는 이웃집 꼬마아이다. 정신지체 등 국가나 사회가 돌봐주어야 할 취약한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하여 밤늦은 시간에도 ‘알바’를 하는 학생이다. 오로지 편안한 대자연 안에서 조용히 사색하고자 하는 부녀자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요구에 화답하듯 엄중처벌을 강조하고 영구 제거를 말한다.

우리의 대응방안은?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비교적 강력한 형법적 대처를 하고 있다.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중형 입법이 수시로 이루어져 범행수법과 죄질과 결과가 중한 강력한 범죄에 대하여는 실무상으로도 징역 5년 이상의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고 있다.

재범의 우려가 예상되는 ‘성범죄자’들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든가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든가 성충동역제 호르몬주사 투입이라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것,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심지어 남성 호르몬 분비기관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 제도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다.

사형(死刑)은 대안인가?

심지어 유력 정치인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패륜적 범죄에 대하여 사형의 선고는 물론 사형집행이 또 다른 대안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시때때로 불거지고 즉흥적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치권력이든, 언론이든, 사법부든 심지어 그 세력이 사회주도층이라고 해도 어느 일방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여론 또한 가변적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다발적 대응이 필요

문제는 이러한 대책이 과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혹시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시행하더라도 가시적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더욱 국민의 법 감정에 편승한 인기 영합적이고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닌가 하는 점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범죄는 없어질 수도 없고 누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 기능이 회복되고, 마을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찰은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고 민생치안에 집중하여야 한다. 밝고 맑은 환경 조성 등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추적관찰 등 전자감시체제를 상시 가동시켜야 한다. 확실한 사후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인 조기 검거 등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필수적이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정도로 그 형량을 높여야 한다.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단계에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는 원상회복에 가까운 정도로 보상 등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제대로 방임되어서는 아니되는 국가의 기본 의무이다.

백록담

대학마저 외면한 ‘최저임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 그러나 국립대학인 제주대에서는 지지 않고 있다고.

올해 공시된 최저임금은 4580원. 그러나 제주대의 업무보조장학생 시급은 4500원.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등록금이 인하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 등으로 지지기 못했다고.

전국 명문대학 20위권 진입을 바라는 제주대로서, 단돈 80원으로 인해 체면 구기는 건 아닌지, 업무보조장학생 최저임금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마디.

독자기고

제주사람이 ‘제주어 위기’ 자극 받아야



현혜림
국어국문학과 3

사람에게 ‘언어’가 없다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본다. 이는 언어와 사고(思考)에 대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질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의 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뜬금없이 이런 질문과 생각을 유도한 것은 몇 년 전 접한 기사 때문이다.

2012년 12월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레드북 홈페이지’에 제주어가 등재되고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기준으로 한 소멸 위기 언어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규정했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를 접하기 전까지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학생이었고,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남들과 비슷한 정도였으나 이후

‘제주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제주어’는 제주도의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으로 옛 고어의 형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아래아)’ 등 옛 중세국어의 어휘들이 상당수가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있는 언어이다.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남아있는 언어이지만, ‘제주어’에는 ‘제주도’만의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혀있고 그 언어를 사용한 선인들의 삶과 교훈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 가치가 높은 언어이지만, ‘제주어’의 사용량은 줄어들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제주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반짝 관심일 우려가 크다. 만약 그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제주어’에 대해 한 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러한 관심은 여러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주어’의 사용이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언어는 ‘말, 대화’로써 그 생명을 이

어간다. ‘제주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크게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단 한마디라도 ‘제주어’를 사용해보고 그 언어 속에 담겨있는 문화를 읽고 느껴보자는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그 모습이 파괴된다면 되찾기가 어렵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제주어’는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언제까지 쓰일 것인가, 그 언어가 지속될 것인가’라는 질문만을 놓고 있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 세대와 문화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제주어’에 대해 관심을 두자고 말하고 싶다. 즉, 일부분일지라도 자신의 일상 속에 놓아 보자. 아주 작은 실천이 큰 문화를 형성하고 언어를 보존하는 길일 것이다. 오늘 한 번 지나가는 이웃 어르신에게 한마디를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 ‘삼촌, 어디가미우광?’, 어디감수광, 삼촌?’이라고 말이다.



성혜원
경영학과 1

최근 대학본관 3층의 리모델링으로 학생복지과 등 여러 부서들의 사무실이 재배치되었다. 박물관이 문화교류관 2,3층으로 이전하면서 본관에 있던 부서들이 확장되거나 위치를 바꾸게 되었다. 본관 3층에 위치한 산학협력단은 기존의 협소한 공간이 확장되었고, 1층에 위치하던 경영사업단과 학생복지과도 3층으로 이전되었다. 또한 2층에 위치하던 대화의실은 3층으로 이전하여 새로 설치되었다.

특히 본관 1층과 학생회관 1층에 분리되어 위치하던 학생복지과가 본관 3층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학생복지과 자리는 입학관리과가 사용하게 되었다. 학생복지과는 그동안 공간이 부족하여 두 군데로 나누어져 운영되어왔는데,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사무실을 잘못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복지과가 한군데로 통합되면서 그러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복지과가 대학본관 3층으로 이전되면서 기존의 1층 사무실만큼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학생복지과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에 관한 업무, 학생자치 활동에 관한 업무, 장애학생 지원 업무 등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 어느 부서보다도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학생들이 찾기 쉬운 1층에 학생복지과가 아닌 입학관리과가 위치하게 된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입학관리과는 입학전형을 계획하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데, 재학생들의 이용도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때문에 재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학생복지과보다 접근성이 높을 필요가 없다. 또한 1층에 위치하던 학생복지과가 3층으로 옮겨가면서 종전의 학생복지과 사무실을 이용하던 학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

에서 학생복지과 이전이 학생들을 위해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쉬움이 크다.

현재 본관에 승강기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완공 후에는 학생복지과를 방문하는 재학생들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겠지만, 그동안 1층에 위치하던 사무실의 이전이 당분간 학생들의 혼란과 불편함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던 학생복지과의 3층 이전이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학교 측의 선택에 아쉬움이 남는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소속,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press@jejuun.ac.kr

제33회 영어말하기 대회 참가자 모집

언론미디어센터 영자신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년 9월 28일(금) 오후 4시
- 장 소 :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1층 세미나실

▶참가 신청

- 참가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신청기간 : 2012년 9월 10일(월) ~ 9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754-2278)
- 시상내용 대상 1명, 상금 : 50만원
우수상 2명, 상금 : 각 25만원
장려상 3명, 상금 : 각 10만원

언론미디어센터 영자신문

제6회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친선을 다지기 위해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2년 10월 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

▶참가 신청

- 참가자격 : 제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
- 신청기간 : 2012년 9월 7일(금) ~ 9월 28일(금)
- 접수 장소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인문대학 1호관 2층 ☎ 754-2712)
- 시상 내용 대상 1명, 상금 : 30만원 상당 상품
금상 일반부 1명, 학생부 1명 상금 : 20만원 상당의 상품
은상 일반부 2명, 학생부 2명 상금 : 15만원 상당의 상품
동상 일반부 3명, 학생부 3명 상금 : 10만원 상당의 상품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재일동포 민족교육 앞장... 애뜻한 고향사랑 실천

재일 원로교육자와의 대화 재일제주인센터 초청

일본으로 건너가 극심한 병태와 압박 속에서도,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결코 조국과 민족을 잊지 않았다. 민족교육을 주도하고, 고향에 남은 형제부모 이웃들을 위해 헌신했다. 지난 12일 제주대 박물관 강당에서 마련된 '재일제주인센터 초청-재일 원로 교육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삶을 짧게나마 엿볼 수 있었다.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이창익 교수)는 지난 12일 재일제주인 1세대들을 초청해 '재일 원로교육자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민단오사카본부 민족교육위원장인 김용해(86)씨, 재일 사학자 강재언(86)씨, 오사카제주도연구회를 이끈 양영후(82)씨가 한 자리에 모여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회는 교양강좌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맡고 있는 허영선(전 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장) 시인이 맡았다. 초청된 원로교육자들은,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들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는 이들이다. 김용해씨는 '본명을 사용하는 교육'에 앞장서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또 강재언씨는 한국사 학계가 여전히 일본이 만든 식민사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영후씨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재일 한국인들의 삶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인은 뛰어난 민족
앞으로도 민족성 잃지 말아야

18세가 되던 해 일본으로 건너간 김용해씨는 일본말을 쓰며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갖고서 몇몇이 한국말을 쓰고 우리 이름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인이 우리말과 글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손으로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과서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한 기대와 긍지를 갖고 본명 쓰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강재언씨는 우리 민족이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보여준 저력을 앞세워 우리의 민족성을 강조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5위를 차지했죠. 이 작은 땅덩어리에, 5천만밖에 되지 않는 인구인데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로 인해 억눌려오고 많은 피해를 겪었지만, 해방 이후 이렇듯 방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죠. 한국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깎아내려온 일본의 왜곡에 맞서, 앞으로도 우리는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씨는 최근 다시 도마 위로 떠오른 한일 간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서슴없이 비판했다.

“최근 <통일일보>에 독도문제에 대한 논고를 게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총리대신이 뒤흔나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더군요. 이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을 썼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일본이 합방을 하면서 한국을 불법점거했다고 말이지요.”

네 살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오사카로 건너간 양영후씨는 일본 내에서의 한국인 핍박을 피부로 겪었다. 그래서 더더욱 재일동포의 설움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인들 인간 취급하지 않아
해방 후에도 차별 풍토 지속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이들이 숙박하는 곳을 ‘다코베야’라고 불렀어요. ‘다코’는 일본말로 ‘문어’라는 뜻으로, 이 말인즉슨 조선사람들을 문어단지에 집어넣는 문어 수조으로 본 것이죠. 그만큼 일본의 한국인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했습니다. 지나갈 때 걸음걸이가 넓다며 발에 채었던 적도 다반사였어요.”

김용해씨 역시 본명교육을 추진하면서,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한국인 차별 풍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다고 한다.

“학교 방침을 한국의 민족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도, 교수들이나 교육기관 간부들은 들은 척만 했어요. 특히 일본 학생 부모들은 그런 한국인 애들과는 친구하지 말라며 자식들에게 대놓고 인질하기까지 했죠. 그런 차별과 편견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것을 박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몇이 자각하고 긍지를 가지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교육방식부터 바뀌야 된다는 교육운동을 지금까지도 벌이고 있습니다.”

고향 제주만을 생각하며
맘 흘린 재일제주인 1세대들

온갖 핍박과 차별 속에서도 재일제주인 1세대들은 고개를 굽히지 않고 조국을 위해 일했다. 그 바탕에는 고향에 있는 형제부모, 이웃들이 잘 살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용해씨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오늘날 제주의 기반은 재일제주인 1세대들의 고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고

		
김용해 씨 “한국인이란 긍지 갖고 우리 이름 사용해야”	강재 언	양영 후
1926년 제주시 이호동 출생 1943년 도일 민족교육촉진협의회 한글 강사, 오사카 시립 키타츠루하시 초등학교서 민족학급강사, 재일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 본부 문교부 부장 등 역임 본명을 사용하는 교육운동 펼침 현재 민단오사카본부 민족교육위원장	1926년 제주시 삼양동 출생 1943년 도일 교토대학 문학박사 학위 수여 하나조노대학 명예교수, 『계간 청구』 편집위원 등 역임 『재일코리안의 역사』, 『민단 중앙 민족교육위원회 기획』 역사 교과서 작성 책임 현재 재일 역사학자	1930년 제주시 애월읍 출생 1933년 도일 조선학교 교장, 이쿠노 초급학교 교장, 효고현 아마가사키 공교조선어 교사 등 역임 현재 오사카 생활사 연구회 회장 관서대학 인권문제연구실 특별연구원
『본명은 민족의 긍지』 등 저술	『한국의 개화사상』, 『한국근대사 연구』, 『한국의 근대사상』 등 저술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오사카에서의 4·24교육투쟁 각서』, 『전후 오사카의 조선인 운동』 등 저술

향의 부모 형제 이웃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 하나로, 제 한 몸 아끼지 않고 희생했죠. 끼니도 거르며 필요한 것을 전부 고향의 식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날이 갈수록 민족성을 잃어가는
재일동포사회의 현주소

이렇듯 조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재일동포사회도 시대의 흐름은 피해가질 못하고 있다. 김씨는 재일 3세대, 4세대를 지나 오면서 갈수록 그 민족성을 잃어가는 재일동포사회의 모습을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 급변 67년입니다. 그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고 문물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 습관 이런 것 또한 점점 희석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고방식 등이 전부 일본화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죠. 재일동포 중 다수가 일본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일본 국적을 선호하고 한국 국적을 자연스럽게 꺼려하는 경향도 심해졌습니다. 자기민족을 싫어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몇몇이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 민족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양영후씨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하며 현재의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민

족교육 육성의 물결이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오히려 그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민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들은 많지만 그 영향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재일동포사회에서 민단이나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힘도 예전만 못하죠. 더욱이 민족교육을 경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양씨는 민족성 회복의 일환으로 모여(모국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모어는 그 지역에서의 출생과 밀착돼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배우는 언어죠. 한국어와는 또 다릅니다. 저는 4살 때 일본으로 갔지만 어머니로부터 제주도방언을 들어왔기에 제주도방언을 곧잘 쓰죠. 그런데 내가 쓰는 말 가운데 뭘 모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내 모어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대 학생들,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길

끝으로 이들 원로 교육자들은 참석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건네며, 뜻 깊은 자리를 마무리했다.

김용해씨는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람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그렇다고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이웃사람,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때로는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이 돼줄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영후씨는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정이 쌓일 만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사회를 정이 쌓일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줬으면 해요. 후에 재일제주인들이 찾아왔을 때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강재언씨는 우리나라의 발전의 핵심이 ‘사람’에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능력 개발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자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사람이 가장 귀중한 자산이죠.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 귀족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신 안에 잠재된 숨은 능력을 키우는 데 힘써주시길 당부합니다.”

김소영 기자

**JDC**
대학생아카데미

네만의 열정을 깨워라!

기간_ 2012년 8월 28일 ▶ 11월 27일
홈페이지_ www.jejusori.net
페이스북_ facebook.com/JDCAcademy
블로그_ blog.naver.com/JDCAcademy
문의_ 064) 754-2307(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강의 일정

**양한구**
제주도청장
인간역사의 시대정신과 Global 제주인

**김경형**
한국문화재단 이사
변화는 나 자신이다

**김수영**
한글가
Life is []

**한동은**
미국영화제작자
한인 기업가 정신

**고 산**
대기업 마케팅
도전, 눈부신 시작

**김종현**
NOC 대표이사 본부장
창출력 있는 팀의 리더를 꿈꿔라

**한명수**
SK하이닉스 사장이자
우리 안에 잠재된 창의성 끌어내기

**최일구**
MBC 기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라

**김남훈**
대기업 본부장
힘은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이근철**
대기업 본부장
글로벌 인재되기 - 열정, 도전, 실패, 매달리기

**김수종**
방송제작자
눈은 하늘을 보고, 입은 땅을 밟아라

**임용훈**
영화 도전자, 저널리스트
경쟁을 능히 뛰어넘는 승전, 다양한 경험, 창조적 사고

**이종범**
대기업 본부장
바람의 아들, 천성을 뛰어넘어라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소리**

강연초록 서경식 - ‘기억과 증언’

피해 당사자의 증언·기억을 적극 경청해야

지난 15일 제주시 중앙로 ‘각’ 북카페에서 ‘기억과 증언’을 주제로 한 강연과 평화좌담이 제주민예총과 제주4·3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좌담에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저술과 강연활동을 해온 재일조선인 서경식(동경경제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다카하시 데쓰야(도쿄대) 교수와 한홍구(성공회대) 교수는 패널로 참석했다.

서경식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증언의 어려움을 논하고 그것의 수용과정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는 방법을 역설했다.

서 교수는 라틴아메리카와 유대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유럽인들 중 라틴아메리카나 유대인에 한 잔혹한 행위를 증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피해당사자의 증언이 아닌 다른 사건이나 학살행위의 증언에 우리가 일관된 상상력이 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민족이 겪은 증언 또한 많다고 할 수 없다”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알리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알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역사제로 일본의 태도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반나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논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한국과 아시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지난 15일 ‘기억과 증언’을 주제로 한 평화좌담이 제주시 중앙로 ‘각’ 북카페에서 열렸다.

며 “다른 역사와 자신들의 역사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게 절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국가의 행위에 의해 나온 증언에 관해 ‘과거의 일을 뒤회쳐 들추나’, ‘앞만 보고 살자’라고 일축하는 것은 기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곤장 하는 말”이라며 “지금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은 과거를 돌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증언”임을 강조했다. 서교수의 기조발표 후에는 다카하시 데쓰야 교수와 한홍구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다카하시 데쓰야 교수는 “4·3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냐고 묻는다면, 모른다고 끝이 아니라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모르는 것이 있을지라도 최대한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홍구 교수는 “증언에 관해 우리 사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요구한다”며 “고 문한 쪽은 유물유물 느긋하고 또렷이 말하는 반면 피해자는 아픈 기억들을 잊다보니 두루뭉술하게 말해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논리가 허술해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향”이라고 말했다.

윤신혜 기자